



## 이것저것 다 일일이 따진다면 길은 언제 가겠습니까!

인생은 각본대로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문) 세월이 흐를수록 모두 자기 팔자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에 부닥치면 내 팔자가 그런가보다 하고 또 낙담을 하게 되지요. 정말 제 생각이 맞을까요? 우리의 인생은 각본대로 정해져 있는 것일까요?

답) 이것은 지금 윗눈썹에서 밑의 눈썹을 내려다보지 못하는 격이나 마찬가지로입니다. 각본대로 마음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항상 고정됨이 없다고 그러죠? 각본대로 주어져 있는 것이 마음 아니고 각본에서 벗어난 마음이 되기 때문에 이 마음도 쓰고 저 마음도 쓸 수 있는, 체가 없는 것이 이 마음이다 이겁니다. 만 가지 마음을 낼 수도 있는 것이 마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음식을 갖다 놔두 때도 앞으로 보고 뒤로 보고, 이게 물로 생기고 뭍으로 생기고, 다 알아도 그걸 집어먹고 줄 줄 모른다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다 알아도 그와 똑같은 겁니다. 도라는 것은 한생각에 의해서, 밀접한 문제가 있는 거는 한생각에 의해서 자기를 어떻게 끌고 가느냐의 문제에 있는 거고 참, 이것을 얘기를 해도 바선박이라 뒤집어 보일 수도 없고 참 큰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각본대로 주어져 있다고 생각하기 이전에 스스로 각본대로 주어져 있다는 걸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절대로 못한다.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이걸 이렇게밖에 될 수 없다.' 라는 게 스스로 주어져요, 자기한테. 이젠 색을 보고 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 체 없는 그 마음에 한 찰나의 부동자세한 그 에너지의 뜻은 광력이나 전력이나 자력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것이 스스로 나와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큰 그릇을 들이대면 큰 그릇에 담기고 작은 그릇을 들이대면 작은 그릇에 담긴다 이 소립니다. 얼른 쉽게 말해서. 에너지는 항상 줄지도 않고 늘지도 않고 항상 수시로 나오기 때문에, 내가 큰 그릇을 대면 큰 그릇에 담기고 작은 그릇을 대면, 용도에 따라서 대면은 작은 그릇에 담긴다. 이 담기는 이 자체가 무엇이라고 비유를 할까? 내 한생각에 달려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의 한생각에 달려 있는데 여러분이 이 지금 색을 보고 취하고 물질세계로서의 이 용도에 따라서 수없이 보고, 내고 들이고 내고 들이고 살면서 이게 습이 됐단 말입니다. 미지의 세계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회전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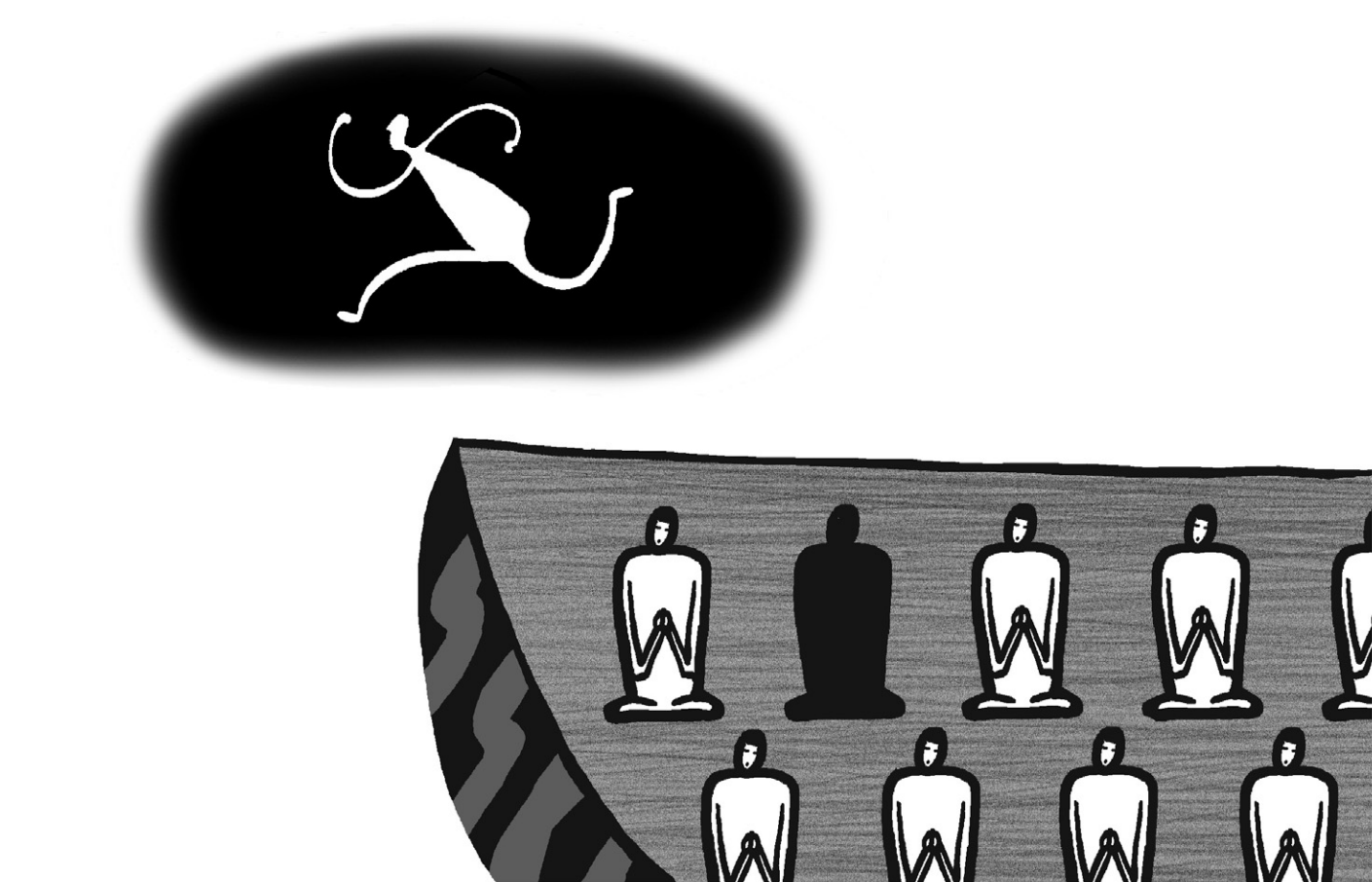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한 번도 해 보지 못했거든요. 생각조차도 해 보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이는 데 지금 우리가 법도가 이렇고 몇 항 몇 조에 이거는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아주 각본대로 주어져 있는 겁니다. 이걸 각본대로 아니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팔자 운명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팔자 운명은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 팔자 운명 속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바로 생각입니다.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이것이 이렇게 가깝다는 걸 알 수 있을까요? 수박은 수박씨가 자기를 자기 안에 넣어 놓고도 바깥에서 수박씨를 찾는 겁니다. 이럴 수가 없어요. 어떤 청년이 와서 "내가 길가를 가니까 모든 사람들이 나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아, 이러거든요. "야, 이놈아. 둘이 아니라는 걸 너한테 네가 가르치기 위해서 지

금 침을 놓는 건데 어떻게 해서 그대 남이 너를 주시한다고 생각을 하느냐? 이 벽을 치면 붓장이 울려야지, 이놈아. 왜 너는 너한테 만날 속아!" 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듯이 이 마음 자체가 너무도 광대하면서도 묘하고 묘하면서도 신비하고 신비하면서도 위대한 겁니다. 사람의 마음자리 하나가 그렇게 천만 가지로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자기 끌고 가는 마음을 내가 지금 어떻게 표현을 해야 좋을가 하는 생각에서 이런 얘기도 하고 이런 얘기도 했는데, 지금 내 팔자가 금방 가서 차에 치어 죽을 팔자라고 해도 "팔자를 가서 보니까 스님, 앞으로 다섯만 있으면 꼭 이게 병이 들리지 않겠습니." 이러거든요. "허무한 소리 하지도 마라. 네가 생각하기에 달렸어. 이놈아, 그런 것 아예, 눈물 피 이런 걸 많이 흘렸기 때문에 아예 그런 것 흘리지 말고 살아, 편리

하게 살아라. 종교는 편리한 거다. 인간이 고등동물로 태어나 90% 100% 이게 부처 될 가능성이 있다고 그런 거는 인간이 그렇게 물리가 터지고 지해가 터지면은 그대로 도다. 그러니 편리하게 살아라." 이겁니다.

그럼 팔자 운명이나 이런 거 보는 사람 다 물어 죽게 생겼죠? 그런 거 저런 거 우리가 따진다면은 스스로서 이 마음이 말합니다, 이거는 옳다 그르다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를 가만히 보십시오. 어떻게 그렇게 옳다 그르다 하는 게 스스로 생깁니까. 스스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주어진다 는 걸 우리는 모르고 있는 겁니다. 구태어 그렇게 나쁜 데로 끌고 가려고 해서가 아니라 규정을 지어 놓기 때문입니다.

고정관념에 고정되게 그냥 자기의 방정대로, 자기가 보고 듣고 사는 대로 그냥, 본 대로 그냥 습대로 그냥 내놓는 거죠. 그런데 그 물리가, 글

써 백지장 하나 사이도 안 되는 고 물리가 왜들 안 터집니까, 왜? 이것을 뭐라고 표현을 해야 올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쉬게 됐는데 신이 한 짝이 떨어졌더랍니다. 그레 신을 툇둑 털면서 그거를 맞추려고 그러니까 어떤 노인이 지나가다 하는 소리가 "너는 그 신을 맞추려고 하지 말고 신을 버려 봐라. 신으려고 하지 말고 버려 봐라. 네 가족신도 있는데 왜 버리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무슨 생각이 나느냐 하면 신을 놓치면은 내 발바닥이 아픈데 어떻게 가겠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따 하는 소리가 그 생각을 하지마자 자기가 얘기도 안 했는데 "그래, 발바닥이 아파? 발바닥이 아프고 그래서 그 신을 벗지 못하잖고? 이놈아, 벗어 봐! 신이 저절로 생길 테니까." 이러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치에 닿지도 않잖아요, 도대체, 그 사람으로.

그런데 얼마 거리가 멀지 않은 데에서 어느 노인네가 신을 잔뜩 만들어 놓고선, 미투리를 만들어 놓고 파는 게 아니라 길 가고 오는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밥도 얻어먹고 신도 얻고 노비도 얻고 아, 이려고 가게 되니까 그때서야 그 물리가 조금 터져 가지고선 '야, 나도 이 길로 산으로 올라가서 공부나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길로 산으로 올라가서 공부를 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예전에 어느 스님한테 들은 얘긴데요, 우리 생활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한테는 이해가 안 가실지 모르겠지만, 내가 금방 지금 병이 들어서 죽게 됐다. 의학적으로 봐도 그렇고 이런 죽게 됐다. 이걸로서 표현을 할 수 밖에 없어서 이러는 겁니다. 그랬는데 자기가 생각하기를 말합니다, 자기가 끌고 다니려면 자기가 고쳐서 끌고 다니든지 자기가 그냥 부쉬버리든지 말대로 해라 하고선 말겨 두니까 그것이 다 해결이 났고, 오줌으로 뭍로 다 그 나쁜 게 다 나가고 다 해결이 났습니다. 그것이 어디 나뉘어 있는나 하지만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하나,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이렇게 볼 때 100% 하면 70%는 그래도 웃을 수 있고 기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봅니다. 그럼 왜 30%는 없는가? 30%는 마음이 닿지 않아서 못할 뿐 아니라 너무 기울어서 못하고 이런 수가 많습니다. 그럼 색을

22면으로 계속

현대불교신문 · 미안마문화원 공동캠페인

## 자비의 미안마 돕기

### 행복한 나라, 미얀마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합시다

안녕하세요!

미안마 친선대사라는 중책을 맡아 열심히 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림, 김혜옥 불자입니다.



'자비의 미안마 돕기' 캠페인의 놀라운 성과에 불자로서 큰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안마의 어려운 환경은 저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저희 불자들의 작은 관심이 미안마 국민들에게는 더 없는 큰힘이 되고 있습니다. 불자들의 작은 보시가 그들에게는 생명의 물이 되고, 미래를 위한 교육이 되며, 부처님을 받드는 신심이 됩니다.

미안마 극빈촌 어린이의 맑은 미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을 향한 그들의 진실한 믿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속적인 보시와, 봉사활동, 자매결연 등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불자님에 맞는 방법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미안마연방정부 추대 미안마친선대사 김용림 · 김혜옥

부처님 당시의 수행법을 지켜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밝은 미소로 성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초기불교의 원류 미얀마... 현대불교신문과 미안마문화원은 '자비의 미안마 돕기' 캠페인을 통해 불교전통의 아름다운 나눔의 향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 극빈마을 공동우물 파주기 지원**

식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극빈 마을에 불자님의 이름으로 공동우물을 지원합니다. 개인 또는 단체로 우물건립 봉사도 지원 가능합니다.



**- 신부 출가익식 지원**

신부는 미얀마인이 10세 전후로 해야 하는 출가체행 행사이며 미얀마인의 가장 큰 기쁨의 행사. 비용이 없어 신부 의식을 행하지 못하는 빈곤 가정에 비용을 지원합니다.



**- 코리아 종합 기술대학교 건립비용 지원**

나인따야에 건설중인 코리아기술대학교는 미얀마 현지인을 대상으로 외국어, 컴퓨터, 자동차, 등 실용기술을 무상교육하여 빈곤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10년 12월 12일 신축공사가 시작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어린이 교육지원**

교육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아원, 초등학교 설립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용품 및 교육자료 지원에 불자들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 후원물품 지원**

후원금 외에 생활에 필요하고 전달 가능한 것이라면 어떠한 물품도 접수받고 있습니다. 먼저 담당자와 통화 하신 후 보내주시면 봉사단 방문 시 현지에서 직접 전달 합니다.

**- 봉사단 참여**

미안마 문화원을 통해 미얀마 현지에 대한 봉사단으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 미안마문화원 상영민 국장 02)733-5670 현대불교신문 이동경 부장 02)2004-8214

후원금 입금계좌 : 농협 301-0016-0537-91 국제불교지도자협회 \* 후원물품은 현대불교신문사 담당자 통화 후 보내주시면 됩니다.

\* 후원내역과 전달내용은 현대불교신문 지면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지합니다.

현대불교 · 미안마문화원

# 의심치 말고 못났든 잘났든 자기 주인공을 믿으세요

## 21면에서 계속

보고 취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생활이 과학인 줄 모르고 의학인 줄 모르고, 모든 게 이 생활이 진리인 줄 모르고 행하는 분들에 의해서는 기복으로만 나가기 때문에 이거는 팡이죠. 자기가 그렇게 위대하고 정말 신비하고 그렇게 당당하다는 걸, 도도하다는 걸 모르거든요, 모두가.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세워 놓고 잘되겠다고 엘 쓰기 이전에 우리가 진실하게 해 나갈 수 있는 그 여건이 주어졌다면 우리는 뭐든지 아니 할 수 없는 겁니다. 아니 할 수 없고, 아니 될 수 없고 우리는 행복을 누가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빼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단, 우리가 만들어서 행복을 가져오고 또 고에서 빠져나오고 또 병고에서 빠져나오고 가난에서 빠지고, 우리는 계발하는 겁니다. 계발도 정신계발이 아니라 심성계발로서의 정신으로 오관을 통해서 다섯 가지의 구슬이 스스로 돌아갈 때 우리는 그것이 계발이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 그 팔자 운명 이런 것도 각본에 주어졌 있는 것이 아닙니다.

### 이제 선(禪)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문) 참선 공부 하는 방법도 간화선이나 묵조선이나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요즘은 간화선이 대세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선에 좀 관심이 생겼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답) 요즘은 사람들이 모두 묵조선 간화선 하고서 모두 좌선들을 하고 화두들을 쥐고 이력하고 있는데 외려 화두를 잡고 오히려 막고 있어요. 그게 끊어질까 봐 걱정, '이거 어느 스님한테서 받았는데...' 하는 그 착, 어느 스님이 따로 있나요? 내가 이 세상에 나오기부터 내가 화두요 내가 공했었는데, 나로부터 생기는 거지 거기에다 덧붙여서 또 그놈의 게 끊어질까 봐 걱정, 결제하면 결제하는 대로 결제했다고, 하루 8시간이고 9 시간이고 앉아 있는 것이 능사가 아니에요. 서는 것도 서는 게 아니고 앉는 것도 앉는 게 아닙니다.

예전에는 나가서 일하고 앉아 있을 틈도 있었지만 지금은 지금대로 뛰면서 생각하지 않으면 못 사는 세상이지요. 그게 전부 참선이에요. 그렇게 돌리지 않는다면 생활 불교가 어떻게 되며 현재 참선이 어떻게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스님네들만 공부하지 스님네들 아닌 사람들은 전부 공부 못하겠네요? 벌여먹어야 할 테니까. 벌여먹는 것이 전부 참선인데 말입니다. 이것저것을 다 일일이 따진다면 언제 길은 가겠습니까.

나는 예전부터 법당에 몰래 들어가서 밤을 새우고 새벽이면 몰래 나오고 그러기도 많이 했어요. 꼬박 그냥 앉아 있기도 하고, 밤을 새워서, 그것도 누가 앉으려서 앉았으면 못 앉았어요. 아,

다리가 굳어서 앉아 있었어요. 밤새도록? 내가 앉고 싶으니까 앉아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앉고 싶으면 앉고 서고 싶으면 서고, 내 마음은 결제 해제도 없다 이겁니다. 모든 것을 전체 놓고 돌아간다면 그 결제 해제가 없으면서도 결제 해제가 있고 있으면서도 없는 걸로 그냥 하는 겁니다. 너무도 아주 슬기롭게 넘어가거든요, 모두가. 유(有)의 범 무(無)의 범을 무시하지 않고 항상 이렇게 평등하게 맞춰 가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화두가 아니다 기다 하기보다는 지금 현대의 과학문명이 발달된 이 시점에서 우리가 빨리, 심년이고 이십년이고 이렇게 걸려서 그것은 어렵거든요. 지금 시대가 너무 발달이 돼

내가 토론하는 거지 그 화두를 드는 것이 잘못이다 잘못이다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현대 이 변천해 돌아가는 이 시점에서는 즉시 들어가야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들이고 내는 거를 의심치 말고 들이고 내라 이겁니다. 의심치 말고 자기 주인공을 자기가 믿어라 이거예요. 판 사람이 화두 준 걸 믿지 말고 못났든 잘났든 자기 주인공을 믿어라 이겁니다. 이 세상이 생겼고 나로부터 바로 종교가 생겼고 나로부터 들이고 내는 것을 알게 된 거지, 내가 없다면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가 바로 태조요, 그 태조의 근본이 바로 나 자신의 마음

니는 게 아니거든요. 즉 자간데, 뭘 또 모습을 같이 이어서 보려고 하느냐 이겁니다. 자기가 지금 그대로 앉았는데, 거기에 자기가 돌아 안는데, 이 모습은 집과 같은 겁니다. 한 집에 들어 있으면서 왜 바깥에서 그 모습이 자주 오길 바랍니다. 그거부터 벌써 돌아라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런 데다 신경을 씩거나, 본래 그냥 같이 있는데, 본래 같이 있으면서 그 모습이 안 나타나죠. 그러니까 일일이 각각 보일 리가 없어요. 아, 그런데 본래 같이 있지 않으면 왜 그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둘로 보는 사람은 일일이 모습이 각각 보입니다. 자기가 살아나오는 습에 의해서, 인연에 따라서 그 모습으로 항상 보이거든요. 아는

그 모습이 나타난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습 따라 끄달리지 마시라 이겁니다.

### 자식이 자주 빛나가요

문) 고등학교 다니는 아들 녀석이 하나 있는데 자꾸만 속을 썩이고 빛나가기만 합니다. 어떻게 자식의 마음을 잡아야 할까요?

답) 우리가 가정에서 남편을 리드하는 것도 그렇고 아내를 리드하는 것도 그렇고 좀 폭넓게 리드해 나갈 수 있는, 말로 얘기해서 공을 다 깨트리지 말고 안으로 굴러서 그 사람의 마음과 더불어 그저 무전으로 통할 수 있는, 서로 연결이 돼서 서로가 잘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행해야 합니다.

자식도 그렇습니다. 자식도 뿌리를 깊이 박혀 줄 수 있는 것은 반드시 마음으로 해야지, 입으로 놀려서는 자꾸 빛나가요. 입으로 말을 해 가지고는, 저 왜, 밀가루 반죽해서 그냥 그냥 요렇게 주무르고 조물럭 주물럭서 남 나가려야 나갈 틈이 없게 만들지 마시고, 그 세대는 그 세대대로 있고 어른은 어른대로 세대가 있어요. 지금 발전해 나가는 애들의 생활과 어른의 생활과 또 노인네들의 생활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마음을 활달하게 놔두면서 안으로 굴러게 되면 거기까지도, 내 전화를 돌리면 거기까지 버튼이 눌러지지 않고 그 애는 모르지만 그 애 원소 자체는 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소 자체가 개를 끌고 다니는데 아주 잘 끌고 다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걱정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하루 이틀 안 들어왔다 하더라도 거기다만 뵈면 스스로 돌아져서 경험을 하고선 오히려 들어와서 안 나가요. 안 나가 공부 잘한 거죠. 뭐.

이렇게 되는 이치를 여러분이 못 믿고, 자기를 자기가 못 믿어요. 자기의 그 턱 밑에 있는 보배를, 자기가 자기를 못 믿고 항상 걸로 끄달리면서 관세음보살, 무수 보현보살, 뭐 강으로 나가서 물에다가 밥 띄우고 또 물에다가 고기를 사다 넣고 이런 행동들을 해서 무슨 소득이 있느냐 이겁니다. 항상 같이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멀리 외국에서 전화가 와서 "스님, 급한 일이 어떻게 생겼습니다." 이랬을 때 내가 만약 몸으로 비자를 내 가지고 간다 하면 그거 할 수 있겠습니까? 해결할 수 없죠? 이미 죽은 뒤에 가게요? 또 죽은 뒤에도 못 가죠. 늦어서.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건 체가 없기 때문에 수 없이 수만 개가 될 수 있고, 원하는 대로 모습을 바꿔서 할 수가 있습니다. 아프다면 의사가 돼 주고, 가난하다면 관세음보살이 돼 주고, 일찍 죽는다면 칠성부처가 돼 주고, 지장이 돼 주고, 수 없이 그렇게 바뀌는데, 한생각 한생각이 잘라잘라 그렇게 바뀌는데 왜 그것들을 모르고 끄달리느냐 이거예요. 자기를 이년까지 미생물에서부터 먹이를 거쳐서 끌고 온 자기의 주인을 왜 못 믿습니까?

### 자기 주인공에 몰락,

이 전체에 합일된 주인공에 몰락 놔버리세요.

모든 거를 거기다 일임하고 놔버린다면

일거일동 일체 다 놔버린다면

들이고 뱀도 그 한군데서 들이고 낸다면

바로 거기에서 진짜 의정이 나올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시대로 봐서는 즉각 들어갈 수 있 길입니다.

서 잘들 사람들이 안다고 할까요? 순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는 게 많기 때문에 그걸 들고선 있으면 이 머리가 터질 거 같은 거예요. 아는 게 많기 때문에. 그걸 들고 있어도 그대로 이거를 순수하게 이렇게 곧장 일직선으로 들어가질 못해요.

그러니까 조금 즉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나 하는 것을 모색해서 얘기하는 것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주인공이다 하고 이름을 세워 놓은 것도 방편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방편이 그건 실질적인 거예요. 이게 공자가 색이고, 색이 자 공이니까. 그래서 기동 주를 하나 세워서 공으로 이걸 붙잡지 않으면은 거기 소용돌이까지 들어갈 수 없으니까, 내가 그 주인공이라는 걸 하나 세워 놓고, 일부터 세워 놓고 모든 것을 들이고 내는 것이 거기서, 나오는 것도 거기요 들어가는 것도 거기요, 일거일동을 항상 자기는 지켜 보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거기서 진짜 의정이 머리를 들고 나온다 이겁니다. 진짜 화두가 거기서 나와요. 그래, 지금 시대에 쉽게 하는 방법을

이니, 바로 나로부터 화두인 것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의정이 생기는 거고 그걸로 인해서 생활이 생기는 거고 방법이 생기는 거고 그런 건데 어디에서 그 방법의 이치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주인공에 모든 것을 몰락, 이 전체에 합일된 주인공에 몰락 놔 버리세요. 모든 거를 거기다 일임하고 놔 버린다면, 일거일동 일체 다 놔 버린다면, 놔 버리고 감사함도 믿음도, 들이고 뱀도 그 한군데서 들이고 낸다면 바로 거기에서 의정이 진짜 나올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시대로 봐서는 즉각 들어갈 수 있는 길이라고 봅니다.

### 알 수 없는 꿈만 꾸게 되는데

문) 평소에도 그래요 열심히 공부한다고 하는데 꿈에서라도 큰스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자꾸 이 모습 저 모습으로 알 수 없는 꿈만 꾸게 되니 참 답답합니다.

답) 꿈에 모습으로 같이 다닌다고 해서 같이 다

사람 모습으로 보이는 거죠.

그런데 판 사람의 부모로 보인다고 해서 '에이 구! 조상들이 또 어떻게 됐다 보다.' 이렇게 걱정을 하거든요. 또 그럭저럭 말라 이겁니다. 인제는, 조상이 보이면 그 뜻이 뭐냐. 그건 부처님도 그게 될 수 있어요. 내 부처가 말입니다. 그렇게 그 사람으로 화해서, 그것이 왜 그러나 하면은 상대방까지 항상 살던 그 습이 있기 때문에, 그 걸 떼지 못하기 때문에 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만약에 고조부라면 고조부 얼굴을 봤어야죠. 그래서 아버지 모습으로 또 보이는 거예요. 고조부가 아버지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또 어느 친구로 나타나고.

그래서 이게 세 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모든 꼭대기에서 자기를 지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부모로 보이고, 부처님으로 보이고, 윗분으로 보인다 이거야. 그리고 동등하게 보이고 또 아래로 보이고. 이것이 자기 인연이에요. 고. 모습만 바꿨을 뿐이지 모두가 바로 자기 본부에서 나온 것이니 바로 나인 것입니다. 그러니

## 옴마니반메훤 금강시계

만사형통 소원성취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

부처님께서 고통 속에 있는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내리신 영험의 비방이 옴마니반메훤 육자대명왕진언으로 항상 외우고 간직하면 모든 문제가 놀랍게 해결된다고 설하셨다. 옴마니반메훤은 부처님 영험으로 중생들의 갖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신속히 해결하고 슬리하게 해주신 영험의 진언이다.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한 일들이 신통토통하게 해결 된다는 옴마니반메훤을 마음속으로 흠모하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신통하게 묘한 일이 일어나 해결된다. 금강시계 앞면에 동서남북에서 복이 들어오며 만사형통하게 육자대명왕진언 "옴"자를 넣었고 고통과 역경이 와도 슬리하며 소원성취하는 행운의 법구가 금강시계 뒷면에 부착되어 있다. 모든 일이 신통하게 잘 풀리는 육자대명왕진언 옴마니반메훤 금강시계는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며 고급부먼트와 고급문자판을 사용하고 방수처리와 금강치리한 금강시계로 선물로도 품격이 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남성용

여성용

가격 : 남성용 75,000원 / 여성용 7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

전화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예금주 : 이상하)



남성용 반지갑

여성용 지갑

\*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

### 평생부자지갑

## 다라니 福 지갑

원하는 재물을 얻고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 마쳐!!

소중한 남편과 가족친지에게 성공의 선물 / 소중한 아내와 자녀에게 부와 사랑의 선물

부처님 법구에는 세상사는 동안 물질의 고통을 소멸하고 평생부자로 살게하는 대비신력(大悲神力)의 법구가 있는데도 미련한 중생이 깨닫지 못하고 법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고통속에 살아간다. 불가에서는 인연법과 물연법을 중요시 한다. 돈의 집인 지갑 역시 연이 되면 돈이 동서사방에서 들어오지만 연이 안되는 지갑은 돈은 들어오지않고 고통만 준다. 불경, 다라니의 근본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글자 그대로 신통하게 묘한일이 일어나 해결된다는 뜻이다. 다라니 북

지갑은 동서사방에서 복이 들어오게 하는 법구와 막혔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영험의 법구가 들어 있으며 음양의 조화로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왕진언이 지갑 앞면에 들어있다. 소재는 고급소가죽으로 되어 있으며 일반 지갑과는 비교될 수도 없게 내부도 잘 꾸며져 있고 사용하는 중생이 금전의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을 마친 복지갑으로 선물로도 뜻깊은 선물이 될 것이다. 남성용 반지갑 65,000원, 여성용장지갑 98,000원.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신용카드 분할가) 전화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예금주 : 이상하



장사가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개업 선물로도 품격!

## 사업장의 법구 금강 삼고저

장사흥왕과 사업번창성공 축원불공 마쳐!

### 부처님 제1의 비방법구

경기가 너무 없어, 장사가 너무 안되, 문을 닫아야겠어, 요즘 사업을 하는 중생들의 푸념이다. 반면 목도 안중고 불경기도도 흥왕을 누리는 점포와 사업장도 많다. 부자가 되는 터가 있고, 패망하는 터가 있고, 그리고 항상 겨우겨우 먹고사는 터가 있다. 한걸음 한지붕 밑에서도 좋은터가 있어 사업이 잘되고 장사가 흥왕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장사가 안되는 자리를 보면 중생의 지혜도 부족하지만 터도 세고 보이지 않는 집귀의 방해로 오는 손님의 마음을 흔들어 문앞에서 방향하게

만들고, 들어왔더라도 결정을 못하게 방해하며,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손님이 첫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첫손님으로 장사를 힘있게 잡기가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삼고저는 사업장의 화를 미리 쫓고 잡기를 물리치며 사업성공의 수호신으로 고 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 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볼 수 있다. 각종 식당과 점포, 각종사업장, 산 채워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으며 장사흥왕 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는

금강삼고저는 금니로 제작되어있어 품위가 있고 가로8cm 세로3.5cm에 벽에 걸게 고리와 수슬이 달려있어 사업장 안에 걸어 놓으면 좋습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격 : 8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사할스님 20%할인) 전화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예금주 : 이상하

### 장사 성공을 축원합니다

시달, 기드, 의류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이머울,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호텔,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복원원, 각종스포츠센터, 핸드폰점, 생활사무소,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용점, 방한, 방점, 공점, 주유소, 신채소, 위험 사업장 등 여러 사업장의 비방